

# 잡아함17 비아경

날짜: 10월 31st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547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.

“훌륭하신 세존이시여,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말씀하여 주소서.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전일하게 정진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하여 선남자(善男子)들이 출가해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치고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아닌 데로 출가한 목적대로, 위없는 범행을 완전히 이루고 현세에서 증득하여 ‘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,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’고 스스로 알겠습니다.”

그때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.

“훌륭하고, 훌륭하구나. 네가 ‘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법의 요점을 말씀하여 주소서. 저는 그 간략히 말씀하시는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고,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전일하게 정진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.……(내지)……<후세

의 몸을 받지 않는다>고 스스로 알겠습니다’라고, 네가 이렇게 말하였느냐?”

“그렇습니다. 세존이시여.”

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.

“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.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. 비구야, 너에게 주어지지 않은 법[非汝所應之法]<sup>11)</sup>은 마땅히 빨리 끊어 버려야 한다. 그런 법을 끊어 버리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하리라.”

이때 그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.

“세존이시여, 이미 알았습니다. 선서시여, 이미 알았습니다.”

“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어떻게 자세히 이해하였느냐?”

“세존이시여, 색은 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빨리 끊어 버려야 합니다. 수 · 상 · 행 · 식도 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빨리 끊어 버려야 합니다. 그러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입니다. 세존이시여, 이렇게 저는 세존께서 간략히 설명하신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.”

“훌륭하고, 훌륭하구나. 비구야, 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구나. 무슨 까닭인가? 색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빨리 끊어 버려야 하느니라. 그와 같이 수 · 상 · 행 · 식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빨리 끊어 버려야 하느니라. 그것을 끊어 버린 뒤에

는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에 안락할 것이기 때  
문이니라.”

그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  
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. 그는 혼자 고요한 곳에서  
꾸준히 힘써 닦고 익히면서 방일하지 않았고, 꾸준히 힘써 닦  
고 익히면서 방일하지 않은 뒤에 이렇게 사유하였다.

‘선남자들이 출가하여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치고서  
믿음으로 집에서 집 아닌 데로 출가한 목적대로……(내  
지)……〈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〉고 스스로 알았다.’

이때 그 비구는 아라한이 되어 마음이 해탈하였다.

---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